

식물재배기·펫 상품 ... 렌탈업계 '영토 확장'

교원웰스 식물재배기 누적 판매 2만5000개 돌파 ... 올해 급성장

쿠쿠·현대렌탈케어 등 반려동물 상품으로 틈새 겨냥

매트리스 매출 비중 높아져 청호 나이스, 1분기 2배 경증

※정수기 강화하는 렌탈업계

코웨이	지난해 매트리스 매출 2000억원 돌파
청호나이스	지난 1분기 매트리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SK매직	지난해 공기청정기 판매량 전년 대비 50% 증가
쿠쿠	지난해 반려동물 상품군 판매량 전년 대비 135% 증가
웰스	올들어 식물재배기 판매대수 5000대 달성
현대렌탈케어	지난해 11월 이후 고양이 자동화장실 판매량 월10% 증가



식물재배기, 반려동물 건조기, 안마의자...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 중인 렌탈업계의 신규 아이템이다. 정수기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던 렌탈기업이 신규 품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진 렌탈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웰스, 식물재배기 판매 3만대 '코앞' 3일 렌탈업계에 따르면 교원의 렌탈브랜드 웰스가 2018년 출시한 식물재배기 '웰스팜'(사진)의 누적 판매 대수가 2만5000개를 돌파했다. 집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제작한 소형 재배기다. 웰스는 지난해 초부터 이 제품에 렌탈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월 2만원대 비용으로 1년간 재배기와 모종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성장세가 가팔라진 건 올해 들어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5000대의

식물재배기가 판매됐다. 웰스팜 등이 소비자 주목을 받으며 웰스의 누적 렌탈 계정 수가 80만 개를 넘어섰다. 웰스 관계자는 "기존 렌탈업계에서 다루지 않던 상품을 폭넓게 취급한 점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상품군도 렌탈업계의 '떠오르는 아이템'이다. 쿠쿠의 지난해 전체 반려동물 상품군 판매량은 전년보다 135% 늘었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반려동물 건조기인 벨로 에어사워드라이를, 펫 스마트 급수기, 펫 유도차다. 쿠쿠 관계자는 "반려동물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점을 눈여겨보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렌탈케어 역시 반려동물 상품군을 확대하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고양이 자동화장실 라비트2는 출시 이후 월평균 10%

의 꾸준한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마의자·전기레인지 렌탈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웰스의 지난해 안마의자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7% 늘었다. 쿠쿠가 지난해 출시한 '쿠쿠 초고온 3구 인덕션레인지'는 올 1분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94% 증가했다.

◆새로운 대체된 매트리스 렌탈 렌탈업계 전체적으로는 매트리스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침대를 구입하는 대신 렌탈해 사용하는 소비 문화가 유행으로 자리잡으면서 렌탈업계의 관련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다.

청호나이스의 매트리스 제품군은 지난 1분기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판매량을 올렸다. 이 관계자는 "매트리스는 본래 주력 제품이 아니었지만, 관련 수요가 높아지는 걸 보고 마케팅을 강화함에 따라 계정 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다. 코웨이는 지난해에만 2214억원의 매트리스 매출을 올리며 에이스침대, 시몬스에 이어 업계 3위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올해도 매트리스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웰스도 지난해 매트리스 판매량이 전년보다 59% 늘었다.

SK매직은 공기청정기 부문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공기청정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SK매직은 전년보다 50%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3월 출시한 이 회사의 '울클린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핏'은 월 1만대씩 팔리는 실적을 내고 있다. SK매직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인수한 가정용 식물재배기 기업 에이아이플러스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식물재배기도 곧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묶인 레미콘 트럭 공급... "지자체로 위임해야"

중기중앙회, 300개 업체 조사 71% "출하능력 비해 트럭 부족"



국토교통부가 12년째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중지한 가운데 중소레미콘업체 10곳 중 7곳이 레미콘 트럭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운반비 급등, 운송차질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레미콘 운반업체의 불법 집단행동 전담 창구 마련과 레미콘 트럭 수급 조절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차령제한제도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2~19일 레미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중소레미콘업체 71.3%는 출하능력 대비 보유·계약하고 있는 레미콘 트럭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도권에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83.1%로 높게 나타났다. 6대 이

상 부족한 경우가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에 달했다. 필요한 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대상에서 레미콘 트럭 제외'(39.6%), '차량 부족 지역에 신규 등록 허용'(31.2%), '한시적 해제 및 시장 분석 후 적용'(2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레미콘 트럭 임대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신규 차량 등록을 금지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건설

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레미콘 트럭의 수급 조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 차량등록 제한 장기화로 가장 많이 겪었던 경영여론(복수 응답)은 '운반비 급등'(7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운반사업자의 운송 기득권 기반 과한 요구'(55.7%)와 '차량 부족에 따른 운송 차질'(50.7%)도 있었다.

정부 건의 사항(복수 응답)으로 '운반사업자 불법 집단행동 대응 전담창구 마련'(61.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수급조절 방식 전반적 정비(지자체 위임 등) 50.7%', '수급조절위에 레미콘업체 위원 포함'(40.7%) 등도 있었다. 배조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수급조절 해제 조치가 절실한 상황으로, 수급조절위에 중소레미콘업체 위원 참여 등 업계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소부장 상생모델 50개 중기부, 2024년까지 발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발전을 위해 2024년까지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50개를 발굴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3일 경기 용인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소부장 중소기업 대표들과 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상생협의회는 소부장 분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반도체 3건, 전기전자 3건, 기계금속 3건 등 총 9건의 상생 모델을 발굴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날 상생협의회는 전기차, 2차 전지, 액화천연가스(LNG)터빈, 광학센서 등 신규 상생 모델 4건을 추가 심의하고 기술개발, 정책자금, 규제개선 등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승인된 상생 모델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반영해 정책 지원과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 개 상생 모델당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민경진 기자

생분해 비닐·재생종이 완충재 '착한 포장' 늘리는 가구업계

퍼시스·현대리바트·한샘 등 ESG 바람 타고 사용 확대



퍼시스그룹의 수면 전문 브랜드 슬로우우는 지난해 3월부터 토퍼 등 모든 제품의 포장과 배송 전 과정에 '산화생분해성 비닐(사진)'만 쓰고 있다. 이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산소와 햇빛, 온도, 미생물 등에 의해 일반 비닐보다 빠르게 분해돼 환경 친화적이라는 평가다. 퍼시스 관계자는 "기능과 외관은 일반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비닐과 똑같지만 무게당 탄소 발생량이 75%가량 적다"며 "퍼시스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에 따라 업계 최초로 올해 초 일부 제품에서 시작해 지난해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고 3일 설명했다.

포장과 배송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을 주성분으로 한 기존 비닐 테이프를 '종이 폼 테이프'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종이 폼 테이프는 물에 적시면 점성이 생기는 테이프를 일컫는다. 천연 크라프트지와 전분을 기초로 한 접착제로 만들어 유해 물질이 전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SG 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착한 포

장'을 늘리는 가구업체가 속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앞서 현대리바트는 가구 배송 때 제품의 모서리를 보호하거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쓰는 스티로폼을 100% 재생종이로 만든 완충재 '히니콤'으로 대체했다. 히니콤은 재생종이를 벌집 구조로 만들어 쉽게 구겨지지 않게 제작한 완충재다. 현대리바트의 히니콤 사용량은 연간 약 70만 개에 달한다. 이는 스티로폼 21에 달하는 규모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샘도 조만간 친환경 포장 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구 포장재를 도입하고 포장 완충재와 박스 테이프 등 다른 포장 자재도 친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게 핵심이다. 회사 측은 "시공 후 포장재도 더 원활하게 회수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장뿐 아니라 가구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AI기술 앱으로 영상 편집 시간 단축"

옴즈테크 빈즈소프트

영상속 음성으로 텍스트로 인식 텍스트 고치면 동영상도 편집

영상까지 자동으로 편집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존 영상편집 프로그램보다 여섯 배 이상 빠르게 편집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튠즈는 현재 안드로이드용 앱으로 출시돼 있다. 이 대표는 "애플 운영체제(iOS)용 앱도 오는 6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영상 편집·제작 의뢰나 인코딩, 클라우드 등 추가 서비스를 개발해 매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대중적 인기를 모으면서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쓰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일반인이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복잡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다루며 자막과 배경음악 등을 영상에 넣으려면 10분짜리 브이로그를 편집하는 데만 평균 5~8시간이 걸린다.

빈즈소프트의 영상편집 앱 '아이튜브(AiTub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편집 시간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인식해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폰으로 간편하게 필요한 구간만 편집할 수 있다. 이준택 빈즈소프트 대표(사진)는 "마지막 한글 문서를 편집하듯 텍스트를 붙이거나 잘라내면 그에 연동된

빈즈소프트는 카메라가 글자를 인식해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는 펜인 'AI펜'도 개발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를 펜으로 누르면 뜻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올해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

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 출장길이 막혔다. 이에 따라 현재 AI펜도 '번뜻'이란 앱 개발로 대체한 상태다. 번뜻은 펜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앱으로 구현한 것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모르는 단어를 찍으면 일본어한자 등 단어의 뜻을 알려준다. 김동현 기자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은퇴를 고민하는 사장님들의 승계 세무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업개요

- 중소기업 승계 관련 제도(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세무사와 기업 매칭
-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정보제공 및 승계 불확실성 제거, 제도접근성 강화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 자문)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정부 ☎ 02-2124-3146-7

KBIZ 중소기업중앙회